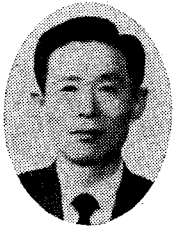


企業과 特許情報



金 斗 弘
〈韓國科技情報센터 所長〉

特許情報의 特性

特許情報에 관해서는 우선 그 特異한 性格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特異性이란 特許制度에서 발생한 情報라는 점이다.

特許制度란 새로운 技術이나 製品을 發明하여 그 發明을 公開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報償으로 一定期間 特許權이라는 獨占權을 주어 第三者로 하여금 公開된 技術을 이용함으로써 技術을 改良할 機會를 주고 나아가서는 또다른 새로운 發明으로 誘導하여 産業發達을 促進시키며 반면 發明者에게는 새로운 技術에 대한 獨占的인 利潤을 얻을 수 있는 權利(特許權)를 줌으로써 새로운 技術開發과 發明에 대한 의욕을 자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制度이다.

이와같이 公開되는 發明의 내용은 各國에서 發表하는 特許公報類에 실리게 되는데 이것이 곧 特許情報이다. 이러한 特許情報은 科學技術情報 가운데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特許權이란 獨占權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特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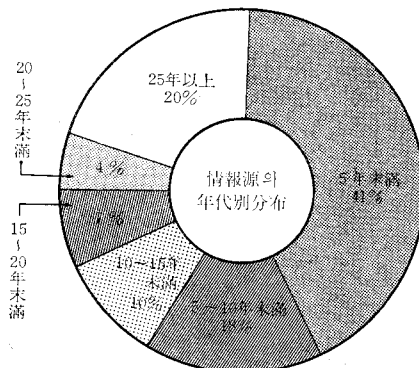
特許情報를 순수한 科學技術情報과 比較하여 보았을 경우 뚜렷이 다른 두 가지의 特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情報의 質이 고르다”는 점이다. 이 뜻은 현재의 技術水準으로 가능한가 하는 發明의 타당성 與否와 또한 第三者가 이 새로운 技術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具體的으로 상세하게 記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審査官이 金

審査過程을 거쳐서 檢討하였다는 점과 情報로서의 樣式과 形式이 일정한 形態로 整理되어 있으며 거기에 特許分類에 의해서 分類, 整理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의 特徵은 特許情報은 항상 “오래된 情報이면서도 새로운 情報의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時日이 경과되어도 그 情報로서의 價値를 잃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만 特許權의 存續期間 동안 긴 歲月에 걸쳐서 그 權利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特許情報도 先行技術情報源으로서 有效하게 活用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 좋은 예로 네덜란드에 있는 特許調査機關으로 有名한 I.I.B. (Institute Internationale des Brevets)에서 제7회 (1967) ICIREPAT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formation Retrieval among Examining Patent

그림 1. 先行技術情報源의 年代別分布



Offices)總會에서 調査報告한 바에 의하면 先行技術情報源의 年代別 分布는 결코 최근의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도 널리 利用되고 있을 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것은 오랜 歲月에 걸쳐서 蓄積된 情報가 아직도 그 威力을 발휘한다는 特許情報의 特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I.I.B.의 報告에 따르면 새로운 發明을 誘發하는 先行技術情報源으로서 特許情報가 91.3%나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7%가 非特許文獻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2).

이것은 特許情報가 새로운 發明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特許 혹은 發明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他人의 發明을 참고로 하여 改良할 때에 비로소 發明이 유발되는 것이다. 여기서 特許情報는 特許權에 관계되는 權利情報로서만이 아니라 新技術, 혹은 新製品 開發을 위한 技術情報로서 큰 價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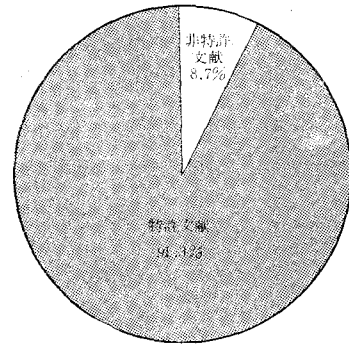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情報의 重要性

特許法 第1條 (目的)에 의하면 “發明을 獎勵, 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 大多數의 나라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特許制度를 採用하고 있으며 自國에서는 물론이려니와 外國의 우수한 發明까지 導入하여 産業發達에 寄與코자 힘쓰고 있다.

近代特許(發明)는 組織과 投資의 產物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지난 날의 發明은 주로 個人的 능력에 依存한데 반해서 오늘날과 같이 技術이 高度로 發達한 현대에 와서는 여러 사람의 頭腦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投資(研究開發費와 時間)를 組織的으로 運營하여야만 현재의 技術水準을 증가하는 技術開發과 技術革新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즉 全體의 技術水準이 향상되어 있어서 새로운 技術開發로 特許權을 獲得하려면, 個人的 능력으로는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先進國의 大企業들은 권위있는 技術陣으로 研究開發 팀을 構成하여, 完비된 研究施設과 방대한 研究開發

그림2. 新技術開發의 情報源



費를 投資하여 애써 얻은 新製品과 新技術을 國內외의 市場에서 獨占, 確保하기 위하여 自國은 물론이고 市場性이 엇보이는 여러 外國에까지도 特許를 出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大企業에 비해서 資金 또는 專門的인 技術人力이 부족한 先進外國의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대항하기 위해서 技術開發에 특히 力點을 두어 特許權을 獲得, 大企業과 互角을 이루어 경쟁하지 않으면 大企業의 下請企業으로 轉落하고 말기 때문에 加一層 特許管理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듯 中小企業이 特殊한 新製品 또는 新技術을 開發하여 特許化함으로써 大企業으로 跳躍한 사례가 先進國에는 非一非在하기 때문에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과 開發된 新製品, 新技術의 特許化와 特許管理는 各별히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눈부신 發明品이나 革新的인 製品의 대부분이 資本力과 技術蓄積의 所産인 것만은 否認하지 못할 엄연한 사실이지만 中小企業이라고 해서 이에 對抗하기 위한 特許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방대한 研究開發費를 投資하여 成就한 發明이라도 完璧을 기할 수는 없고 어디엔가 반드시 餘白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餘白을 찾아내어 그 구멍을 메우는 것도 한 가지 方法이 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基本이 되는 發明을 土臺로 하여 보다 改良된 새로운 發明으로 이끌게 되면 처음부터 막대한 研究開發費의 投資와 시간을 消費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發明을 成就시킬 수 있다. 이것이 곧 企業에 있어서의 技術蓄積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에 있어서 技術蓄積은 가장 든든한 資產인 것이다.

特許情報의 管理와 運營

최근 中東事態 이후 갑자기 불어닥친 資源波動과 未曾有의 國際經濟의 不황 속에서 企業이 헤쳐나갈 길은 오직 技術開發에 힘써서 새로운 技術과 製品으로 企業競爭에서 승리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애써 開發한 새로운 技術이나 製品이라도 特許라는 새로운 武器로 權利化하여 保護하고 그 特許權으로 自社의 企業이 獨占的 利潤을 남게 하는 유리한 戰略的 高地에 올려놓지 않으면 特許戰爭으로 표현되는 企業間的 切열한 경쟁에서 敗北하는 일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앞에서도 말한대로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特許戰爭에서 凱歌를 올린 企業의 事例도 많거나 반대로 失敗의 쓴맛을 본 企業도 허다하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企業은 지난 날 特許로 해서 크게 成功한 일도 드물거나 반대로 크게 損害를 입은 企業도 드문 까닭에 特許에 대해 大體로 무관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네 企業들이 앞으로 이렇듯 安逸한 企業運營을 持續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쯤 反省해 보아야 할 일이다.

特許戰爭에서의 勝敗의 關鍵은 그 企業에서 特許制度를 얼마나 이해하고 各種 特許情報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냐는 데 있다. 이렇게 開發된 技術이나 製品을 特許出願하여 權利化하고 特許로 權利化된 製品을 他社에 침해당하지 않게 보전함은 물론이고, 他人의 特許權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一聯의 特許情報管理業務에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企業發展을 이루는 捷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先進國에서는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大部分의 企業들이 特許部, 또는 特許課 등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企業內에 설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企業에서도 特許專擔部署를 두고 있는 企業이 생겨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特許情報管理方法에는 集中管理와 分散管理의 두 방식이 있다. 集中管理는 企業의 意思決定權을 가진 最高經營者의 直轄部署로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企業內的 研究室과 工場에 特許情報를 제공하고 研究室과 工

場에서 發生되는 新技術이나 新製品을 特許出願하며 特許化된 것은 물론, 노우하우까지도 保全管理하고 他社와의 라이선스 관계의 業務를 맡고 있는 管理體制를 말한다.

한편 分散管理는 特許情報의 성격에 따라 生産部署와 管理部署마다 그 部署의 責任者 밑에서 각각 管理하는 방식이다.

先進國에서는 대부분의 企業이 集中管理體制의 特許專擔部署를 채택하여 自社의 特許戰略을 企劃, 결정하여 執行하기 때문에 企業內的 業務全般에 걸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되어 있다.

여기에 特許專擔部署의 業務를 열거하여 보기로 한다.

1. 企業이 필요로 하는 國內外의 各種 特許情報를 수집, 정리하여 生産部나 研究室의 技術者에게 情報 서어비스한다.

2. 自社製品을 國內外에 特許出願하고 特許化된 것을 保全한다(意匠, 商標도 包含).

3. 國內外 競爭社의 技術開發動向을 特許情報로 계속 追跡하기 위하여 情報分析業務를 수행한다.

4. 國內外 企業에 自社의 特許, 또는 노우하우의 實施를 許諾하는 일이나 또는 他社의 特許나 노우하우를 導入하는 일이나 自社特許와 他社特許와의 크로스 라이선스하는 일 등의 라이선싱 業務를 수행한다.

이러한 業務를 맡고 있는 特許部署의 責任者는 최고의 意思決定權者인 社長에게 直屬되어 있으며 生産部署나 研究室의 責任者와 定期 또는 수시로 連席會議를 갖고 서로 意見을 交換하여 社長에게 報告함으로써 工業所有權 관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先進國의 大企業은 特許管理部署의 從業員數가 100명이 넘으며 그 管理를 電算機로 機械化하고 있는 곳도 많으며 相當數의 特許辯護士 또는 辯理士까지 두고 있다.

우리나라 企業은 이러한 先進外國의 大企業과 같은 規模의 特許部署는 두지 못하더라도 企業의 業種, 規模, 능력에 따라서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여, 社長 直屬의 集中管理體制를 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 機會에 재삼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